

# 근대 사직공원의 형성과 변천\*

김서린\* · 김해경\*\* · 박미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조경학과 · \*\*건국대학교 녹지환경계획학과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Change in the Mordern Sajik Park

Kim, Seo-Lin\* · Kim, Hai-Gyoung\*\* · Park, Mi-Hyu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G.S Architects & Associates

### ABSTRACT

Sajikdan(a sort of national shrine in Korea) built at the time of foundation of Joseon was entrenched into Sajik Park going through Japanese colonial era and recently the efforts to restore it is in progress. The details of change in Sajikdan in terms of diachronic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irst period refers to one prior to Japanese colonial era from the first king (also named as “Taejo” in Korean) of the Joseon Dynasty, during which it secured and strengthened the presence as a place for performing important national rites in a nation. It was built on the foot of Inwangsan Mt. at the time of the first king in Joseon Dynasty at first, was destroyed fully by fire during a Japanese Invasion period to Korea(1592-98) and afterward its ancestral ritual facilities were completed under the regime of Youngjo. However, as Japanese intervention coming to the fore, its place was destroyed and then ancestral rites were also abolished in 1908.

Secondly, next period falls on 1910 to 1944 when it was transformed and entrenched into a park by the Japanese Empire. While facilities related to a park and an heterogeneous building around the part of boundary were set up, the area of altar, a ritual house and d door of Sajikdan were also designated as historical remains and treasures.

Thirdly, this period refers to one from Korea’s liberation year from Japanese colony(1945) to the year of 1984 when it had a mixed placeness with the statues, monuments and buildings with heterogeneous nature built. Furthermore, a door of Sajikdan was removed and reconstructed over twice due to opening of Sajik Tunnel.

Fourthly, a final period falls on 1985 to the present when efforts are in progress to restore the historicity and symbolism of Sajikdan. A plan for restoration is promoted but now is a difficult time suffering from troubles caused by residents’ resistance.

Scrutinized historical researches through excavation investigation and residents’ understanding are required altogether for restoration of Sajikdan.

*Key Words: Desine plan, Modern Park, Opening to the Public*

### 국문초록

조선 개국 시 영조된 사직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직공원으로 고착화되었고, 최근 복원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통시적으로 분석된 사직단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나라의 중요 국가제사를 지내던 장소로의 입지를 확보하고 강화되었던 조선시대 태조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 본 논문은 건국대학교 KU연구전임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행된 과제임.

† Corresponding Author : Kim, Hai-Gyoung, Konkuk Univers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Design, Seoul 143-701, South Korea. Phone: +82-10-8954-4981, E-mail: ahjuna@konkuk.ac.kr

시기이다. 태조대에 인왕산 자락에 축조했으며 임진왜란 시 소실된 후 영조 대에 제resh설이 완비되었다. 그러나 1908년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되자 공간 멸실과 제사가 폐지되었다. 둘째, 일제에 의해 공원이화가 진행되어 고착화된 1910년부터 1944년까지이다. 공원 관련 시설과 경계부에 이질적인 건축물이 들어섰고, 단 영역·재실·사직단문이 고적과 보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셋째, 해방 이후 1984년까지 이질적 성격의 동상과 기념비, 건축물이 축조되어 혼재된 장소성을 지니게 된 시기이다. 사직터널의 개설로 사직단 문이 2번에 걸쳐서 이축되기도 하였다. 넷째, 사직단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사직단 권역의 복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에 대한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향후, 사직단의 원형 회복을 위한 복원을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한 면밀한 고증과 주민의 이해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주제어: 근대공원, 일반인 개방, 설계도면

# 1.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사직단은 토지신인 국사신(國社神)과 곡물신인 국직신(國稷神)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단(社壇)과 직단(稷壇)으로 구성된다. 삼국시대부터 단을 조성하여 제사를 지내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종묘와 함께 개국 시 축조했다. 종묘와 사직단의 배치는 『주례(周禮)』의 「고공기(考工記)」에 ‘左廟右社面朝後市’를 준거로 하였고, 각 지방 읍성에는 사직단을 세우고 지방관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Ju, 2006: 237). 조선 태조 4년(1395년) 한양에 축조된 사직단은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매년 4번의 대사(大祀)와 중사(中祀), 기우제(祈雨祭)와 기곡제(祈穀祭) 등을 지내는 국가의 중요한 제례 장소(Kong, 2009: 148) 역할을 담당했다.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자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던 엄숙함과 위엄을 지닌 제례 공간은 경성시민의 일상적인 방문이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변모했다. 해방 이후에도 도시계획의 요구와 급변하는 사회적 배경의 영향으로 이질적 요소의 도입은 지속되었다. 사직단 권역의 복원 노력은 1985년 『서울사직단 고증조사 및 복원보고서』가 발간된 후 공원 내외부 정비와 일부 건물에 대한 복원 논의가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이는 사직단의 중요성과 문화 유산적 가치를 재인식한 정체성 찾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직단 영역에 누적된 시간의 층을 볼 수 있는 공간의 과정적 변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사직단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직단의 개념적 공간 구성과 조영, 사직단의 설립과 운영, 멸실된 건물의 복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Kim and Lim, 2001; Kim, 2008; Jang, 2011; Choi et al., 2012). 선행연구에서 사직단의 공간 분석 시 활용된 도면은 측량에 의해서 작도된 지도가 아닌 개념적으로 그려진 조선시대의 지도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를 현재의 공간에 적용 시 불합리한 부분과 오류가 발생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우리나라에서 근대공원의 발생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자주적인 입장에서 조성된 이왕직 소유의 탑골공원과 국민의 성금이 바탕이 된 독립공원, 두 번째 유형은 일본 거류민이 주축이 된 신사 조성 후 공원으로 변모한 용두산공원과 달성공원 등, 세 번째 유형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위엄이 있던 조선의 전통공간을 위락공원으로 활용한 장충단공원과 훈련원공원 등이다. 이중 사직공원은 전통공간이 변모한 공원의 형태이다. 사직공원이 현재의 모습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사회적 상황에 따른 공간 변화의 요구도가 원인이 되어 반영된 모습이다. 그러나 기존 각 공원의 복원 및 정비계획에서는 이러한 과정적 변천에 대한 분석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특정 시기만을 강조한 계획으로 주민과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사직단의 조성부터 현재까지 선행연구와 문헌분석의 바탕 위에 실증적 자료인 일제강점기 지도와 수치지도를 대입하여 공간 변화를 통시적으로 도출한 후 시기별 구별짓기를 하였다. 이는 기존 문헌 위주의 연구가 지닌 추상적인 영역 검토의 한계를 극복한 실증적인 공간 구성요소와 영역 변천 도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도출된 사직단 권역에 투영된 시간 층위의 구별짓기는 향후 진행될 사직단 복원 시점의 당위성 확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분석에 사용된 문헌과 작성된 도면은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자료 발굴로 의의를 지닌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고문헌과 신문 기사를 통해 사직단과 그 부속 시설의 건립과 멸실, 중건 과정을 분석했다. 공간 변화에 따른 도상 작업은 고지도·일제 강점기 지도·위성사진 그리고 현재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이때 과정적 공간 변천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문헌과 도상자료에 대한 목록은 Table 1과 같다.

일차적인 분석 대상에 해당하는 조선시대 고문헌과 도상 자료 중 성종대는 『국조오례의』의 [사직단도], 정조대까지는 『사직서의궤』의 [단유도설]과 [사직서전도], [사직단국왕친

향도병풍]의 [사직서전도]를 활용했다. 사직공원의 공간 변화를 초래한 시대적인 배경은 당시에 발간된 신문기사·잡지·공문서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지도와 설계도면은 사직단이 공원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설계도에는 공원 경계, 산책로, 화단처럼 형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도입된 건축물, 점경물이 표시되어 있다. 사직공원 관련 도면은 명칭 상 설계예정도와 실제설계도가 미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간의 조영 여부는 당시 사진으로 비교 분석하여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사직단에 대한 과정적 변천의 구별짓기는 장소의 성격이 변모한 변이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때 장소성의 변화를 당시의 사회적 배경 하에 공간에 도입된 물리적 요소와 이용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 II. 국가적 제례 공간으로의 형성과 유지: 1392년 - 1909년

### 1. 사직단 시설의 형성 : 태조(太祖, 1392~1398) - 선조(宣祖, 1552-1608)

조선의 개국 초기인 1394년 권중하·정도전 등은 한양 천도를 계획하였고, 도성 내에 사직단을 비롯한 각 필요 시설의 터를 정한 후 1395년 사직단을 영조(營造)했다. 명나라는 사단과 직단을 하나로 구성한 동단(同壇) 형태이나(Jang, 2011: 114~115), 조선은 고려의 예제에 따라 별단(別壇)으로 구성했다.

태조대 사직단 형태를 살펴보면 사단과 직단을 둘러싼 방형 담장의 4방위에 문을 축조했다(Figure 1a 참조). 태종대(太宗, 1400~1418)에는 유(壘)<sup>1)</sup>와 환장(環牆), 그리고 재실(齋室)을 갖추었다(Figure 1b 참조). 이때, 환장의 설치는 사직단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임을 알 수 있으며, 출입을 위해서 문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문 조성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선행 연구자별 의견이 분분하다<sup>2)</sup>.

『세종실록 지리지』 권 148의 “사직(社稷) 인달방(仁達坊)에 있으니, 둘레의 담에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직단 주변에 배경목으로 소나무를 식재했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 40년(1607년) 6월 9일의 기사는 “사직단 밖 남·서·북 3면의 허다한 소나무를 송충이가 잎을 갉아먹어...”라는 내용은 사직단 외곽의 4방 중 동쪽을 제외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소나무림을 조성했음을 보여준다. 18세기 후반의 [도성대지도](Figure 2f 참조)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조선고적도보 11』을 보면 사직단 주변이 울창한 송림으로 위요되어 있어 엄숙한 공간임을 느끼게 해준다.

문종대(文宗, 1450-1452)에는 제기를 보관하는 창고인 제기고(祭器庫), 성종대(成宗, 1469-1494)에는 제사음식을 마련하는 공간인 신주(神廚) 영역을 축조했다. 당시의 모습은 1474년 편찬된 『국조오례의』의 [사직단]에서 알 수 있다. 전체 배치는 사단과 직단을 둘러싼 유와 담장으로 구성된 단 권역과 재생정(宰牲亭), 악기고(樂器庫), 신주, 우물을 담장으로 둘러싼 신주 권역으로 구분된다. 성종대까지의 조성 기록과 [사직단도]를 비교한 결과 태종대의 재실과 대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차이점이다.

Table 1. Listing of data related to Sajikdan

No	자료명	생산연도	자료 구분		출처
			도상	기록	
1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1474년		○	서울대학교 규장각
2	『국조오례의』의 「사직단도(社稷署圖)」	1474년	○		서울대학교 규장각
3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1474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4	『사직서의궤』의 「단유도설(壇壇圖說)」	1783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5	『사직서의궤』의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	1783년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6	「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社稷壇國王親享圖屏風)」 중 제1폭 「사직서전도(社稷署全圖)」	1783년	○		국립중앙박물관
7	「사직노송도(社稷老松圖)」	1730년	○		고려대학교 박물관
8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	1760년대	○		「서울의 옛 지도」
9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	http://sillok.history.go.kr/
10	「조선고적도보11(朝鮮古蹟圖譜)」	1931년	○		-
11	「조선지형도집성」	1915년	○		조선총독부
12	「조선지형도집성」	1921년	○		조선총독부
13	「경성부관내도」	1927년	○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14	「경성시가도」	1927년	○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15	「경성도」	1934년	○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16	「대경성정도」	1936년	○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17	「사직단공원관유림내 고순목 조사도」	1937년	○		국가기록원
18	「사직단공원 평면도」	1940년	○		국가기록원
19	「공원용지 내 방공호 설치에 관한 건」	1941년	○		국가기록원
20	「사직단 공원 광장 이전공사 설계서」	1943년	○		국가기록원
21	「서울시 입체 전도」	1955년	○		「서울지도」, 서울역사박물관
22	항공 사진	1978년	○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서비스
기타	황성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경향신문, 별건곤				사진·신문기사 사진



Figure 1. Layout of Sajikdan from regime of Taejo to Sunjo and 「Diagram of Sajikdan」  
 (a~e: 저자 작성, f: 「도성대지도」, 18세기 후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소장)

이처럼 태조대에는 사직단의 핵심요소인 단이 먼저 축조된 후 이를 보호하기 위한 담장과 수목을 통한 위엄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었다. 선조대에 이르러서야 제례를 돕기 위한 부속건물이 축조되어 제례를 위한 기본공간이 완성되었다.

**2. 제례를 위한 공간요소의 완비 : 광해군(光海君, 1608-1623) - 정조(正祖, 1777-1800)**

1) 임진왜란(壬辰倭亂) 후 훼손과 복원

임진왜란으로 양단을 제외한 부속 시설이 멸실되었고, 제례 재개를 위해서 신실의 복원과 신주의 재봉안이 진행되었다. 광해군대에는 단문(壇門)과 유문(壝門), 숙종(肅宗, 1674-1720) 대인 1681년에서 1701년까지 임금의 머무는 재궁(齋宮)인 안향청(安香廳)의 신축, 1694년에는 안향청 전면 양쪽에 집사청(執事廳)과 전사청이 증수되었다. 전사청의 부속시설로 잡물고(雜物庫) · 재생정(宰牲亭) · 저구가(杵臼家) · 수복방(守僕房) · 찬만대(饌幔臺) 등을 전사청의 증수 시기에 신설했다. 이외에 신실의 개축(1694년), 부장직소(部長直所, 1701년)<sup>3)</sup>가 신설되었다.

영조(英祖, 1724~1776)대 기록에서 숙종이 사직단 옆 노송을 시로 읊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안향청 전면에 소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영조실록 1736년 9월 2일 기사). [사직서전도]의 노송 위치와 [사직노송도]를 통

해서 소나무의 형태를 알 수 있다. 이정호(2013)는 [사직노송도]의 소나무를 “용 모양의 형상을 한 소나무로 수목 숭배의 영향을 안고 있는 사수(社樹) 혹은 사직수의 신체(神體)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오래된 노송은 안향청의 건물 성격에 견주어 신성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제례 공간의 완비

영조대에는 일부 시설의 부분적인 보수와 건물의 위치와 기능이 변모했다. 부장직소는 대문 옆으로 이축했고<sup>4)</sup>, 제기고를 새롭게 증축<sup>5)</sup>하였으며, 내감(內坎)에 묻은 것을 외감(外坎)으로 옮겨 소각하라는 기록<sup>6)</sup>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문 안쪽에는 내감이, 환장 안쪽에 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Figure 2d 참조)

정조대에 표현된 사직단은 영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직서전도]과 [단유도설], 「사직단국왕친향도병풍」의 [사직서전도]는 숙종대부터 정조대까지의 사직단의 모습이다. 사직단의 담장 내부는 [단유도설], 환장 내의 공간은 [사직서전도]을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사직단의 배치, 어도와 담장의 유무, 전사청 영역에서 차이를 보인다. 두 그림의 차이점을 비교한 표는 Table 2와 같다.



Figure 2. Sajikdan from regime of Kwanghaegun to Jungjo  
 (a · b · d · e : 저자 작성, c :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f : 이자벨라 버드 비숍(sabella Bird Bishop, 1831~1904)의 사진)

Table 2. Comparison of base data

구분	[사직서전도]와 [단유도설](사직서의궤)	[사직서전도](사직단국왕친향도병)	비고
단, 유	· 국사, 국직, 후토씨, 후직씨 신위 배치와 방향 표현	· 사직단과 부속시설 경역을 함께 표현	
장원, 신문, 신실	· 신문의 유문과 동일한 방식 표현 · 남신문 좌우 담장 단 차이 표현	· 왕세자 판위 표시 · 북신문 - 북유문 : 신도 표현 · 서신문 - 서유문 : 신도를 2길로 표현 · 북신문 앞 계단 표현	북신문 방향 반대
안향청 일곽	· 안향청 기단 표현 · 노송 표현	· 차장고, 약기고, 집사청 기단 표현 · 안향청 기단 강조	안향청, 중문, 차장고, 월랑 방향 반대
전사청 일곽	· 건물과 건물 사이 연결 동선 표현	· 전사청, 재생정, 제기고, 잡물고 기단 표현 · 잡물고 우물 표현(8각형)	전사청, 잡물고, 수목방의 방향 반대
대문, 담장과 내부	· 대문과 담장 간략 표현	· 악공청, 부장직소 기단 표현	부장직소와, 악공청 간격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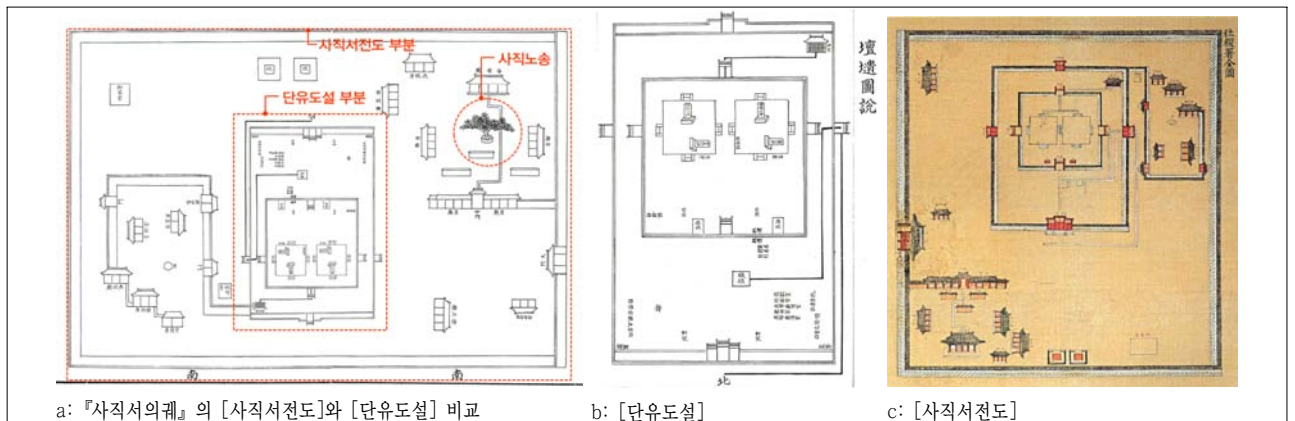


Figure 3. Comparison of base data  
 (a · b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c : 국립중앙박물관)



### 3. 대한제국의 설립과 사직단의 지위 상승

대한제국 설립 후인 1897년 10월 8일에는 사직단 위판(位版)에 쓰인 '국사(國社)'와 '국직(國稷)'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높여 불렀다<sup>7)</sup>. 대사·중사·기우제·별우제 등 제례는 1909년 9월<sup>8)</sup>까지 지속되었다. 제례가 진행되는 동안 담장수리(Hwangsungshinmun, 14 May, 1906)와 같은 시설물 보수가 병행되었다. 1905년 발표된 법률 430조에 "...중략...무고히 사직단과릉상에 등(登)한 자는 징역 일년에 처함이라(Hwangsungshinmun, 7 August, 1905)"과 같은 구체화된 처벌은 신성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진다.

Figure 2f는 영국인 이자벨라 비숍의 사진으로 1894년에서 1904년 사이의 사직단의 모습이다. 사직단 주변은 송림으로 위요되어 있고, 일부 어도와 홍살문이 기울어져 있지만 공지에 잡풀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혼란스러운 시기에도 관리가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 III. 경성의 도시공원으로 변모 : 1910년 - 1944년

### 1. 제례 기능의 상실과 유희지화

1908년 7월 27일의 [대한제국 관보]에는 '칙령 제50호 향사이정(享祀釐整)에 관한 건'을 발표하였고, 이는 재정에 부담이 되는 제사 횃수를 줄이자는 내용으로 사직단 제례를 연 2회로 고정시켰다. 그러나 1911년 1월 삼비발(參秘發) 제76호로 정무총감이 각 도의 장관에게 [사직단 제사 폐지에 관한 건]이란 문건을 보내어 제례를 폐지시켰다. 제례공간으로의 당위성이 사라지자 사직단은 유희지로 방치되었다. 『조선고적도보 11』를 보면 방치된 양단 주변에는 인근 소나무의 유목(幼木)이 자라며, 복신문은 홍살문이 멸실되고 주초석만 남아있다. 전사

청으로 향하는 길은 잡풀과 잡목으로 뒤덮인 모습으로 기존 부속시설물을 철거하지는 않았지만, 적절한 관리 또한 진행되지 않고 방치되었음을 보여준다.

### 2. 공원 조성 계획과 경계부의 변화

1920년대 초 경성부의 주요 사업인 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사직단에 대한 공원화 사업이 착수되었다. 경성부는 1921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사직단 부지를 차입하여 사직단을 헐고 운동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사직단을 헐지 않고 인근에 공원을 조성해야한다는 민심의 반대 의견으로 실행되지 못했다(The Dong-A Ilbo, 29 January, 1921). 이후, 놀이기구와 도서관을 갖춘 아동공원이 수차례 제안되었다(The Dong-A Ilbo, 29 January, 1923). 동아일보 1922년 10월 21일 기사는 "...중략...사직단은 전부 그대로 보관하여 두고, 운동장은 사직 앞 남편에 설치하고 ...중략... 우선 삼림을 정리하며, 그 안에 길을 각 처로 새로 내이고, 동편에 정구운동장을 설치한 후에 ...중략... 연못과 화단과 분수 등도 설치할 터이라더라."는 내용으로 공원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비로소 1922년 10월에 아동공원과 운동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반영된 공원으로 개장되었다(Kang and Jang, 2004: 129).

개장 이후 휴양시설, 조경시설, 편의시설, 운동시설, 기타시설이 추가 설치되었다.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인 대납량대(大納涼臺), 정자와 벤치, 화단 등 휴게시설과 조경시설이 도입되었다(The Dong-A Ilbo, 18 July, 1923). 동아일보 1926년 2월 13일 기사는 "개울치는 것과 나무 심는 것과 도로의 일부분을 개수하는 것, 다리 몇 군데 놓는 것, 테니스 코트 만드는 것, 전등 가설, 공동 변소 건축 등이 주요한 자로 개울은 지금 현상대로 두되 양안의 흙만 더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호안공사를 하여 자연의 운치를 돌을 터이며 식수는 사꾸라 100주를 심어 봄철의 미관을 돌을 터이고 테니스코트는 평지를 이용하여 두 군데를 만들어 무료로 일반에게 공개를 할 터이라는데 이십륙년도에는 약 백 이십 평의 못을 파고 정자도 두 군데를 짓고 단



Figure 4. Sajikdan left alone (a-c: 조선고적도보 11)

풍도 심어 사철의 경계를 둔우리라더라”이다. 신문기사 내용으로 당시의 공원 시설을 알 수 있다. 운동시설인 테니스 코트장, 편의시설인 전등과 공동변소, 휴게시설인 정자, 수경요소인 못, 경관식재로 벚나무와 단풍나무와 함께 공간 정비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성시가도(1927년)]에서는 간략하게 표현된 진입부와 외곽도로가 연결된 산책로를 볼 수 있다. 10년 후에 작성된 [사직단공원관유립내 고손목 조사도]에서는 황학정과 연결된 물길울, [사직단공원 평면도(1940년)]에서는 구체적인 수종은 알 수 없지만 울창하게 우거진 수림이 작도되어 있다.

1927년 [경성부관내도]에서 건물은 불명확하나 외곽 담장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 [경성시가도]는 담장 내부에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전사청 영역의 담장, 저구가, 제기고, 재생정, 수복방과 같은 부속 건물이 소실되고 전사청과 잡물고만이 그려져 있다. 내부 산책로는 이축된 황학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부 건물은 공원이용과 관련된 공간이 들어서면서 상충되어 멸실되었고, 담장의 멸실 부위는 외부시설이 산책로를 통해서 연결되었다.

1931년 공원 북쪽에 매동보통학교의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와 접근로가 조성되면서 사직단 권역의 필지가 분할되고, 북쪽 담장의 멸실과 공원 영역이 축소되었다. 이때 도면에 대한 개괄적인 구적 결과 16,660평에서 약 13,680평으로 약 3,000여 평이 축소되었다.

황학정은 경희궁 회상전 북쪽에 있던 정자인데 1922년 전매국 관사가 들어서면서 현재 위치로 이축되었다. 1934년 [경성도]에서 황학정이 작도되었으며, 사직단 공원 내부에서 황학정까지 다다른 산책로가 점선으로 그려져 산책로 계획을 알 수 있다. 1936년 산책로 공사가 착수되었고(The Dong-A Ilbo, 27 June, 1936), 1936년 [대경성전도]는 실선으로 작도된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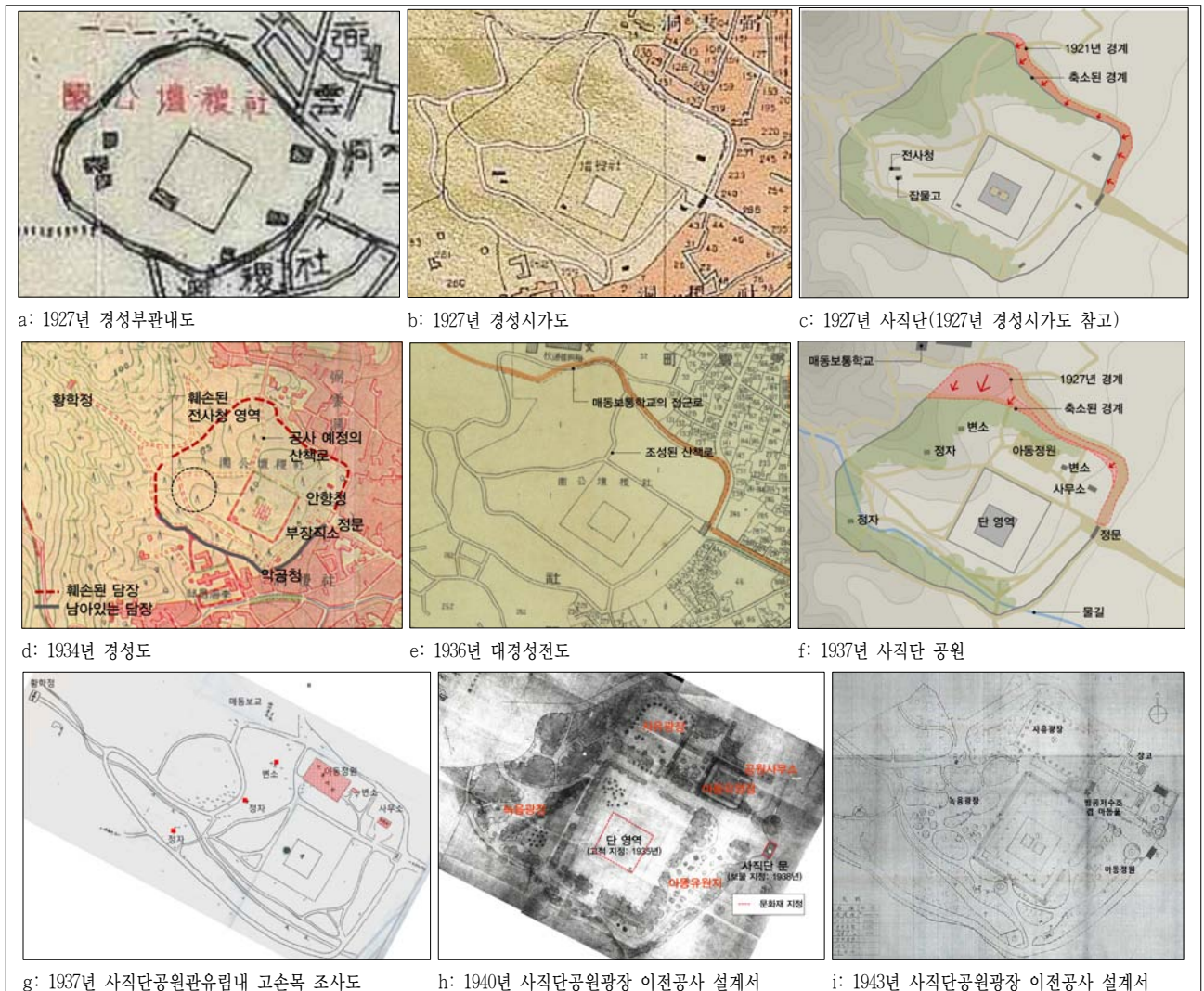


Figure 5. Sajik Park from 1927 to 1937  
(a·b·d·e·g·i: 국가기록원 소장, c·f: 저자 작성)

가 매동초등학교와 연결되어 있다. 1939년에는 산책로 확대와 수목 식재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The Dong-A Ilbo, 19 March, 1939). 1940년 [사직단 공원 평면도]에서 보이는 산책로의 형태는 현재 공원 내 동선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줘 당시의 동선체계가 큰 변화없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산책로의 변화는 단혀있음으로써 위엄을 갖춘 공간이 외부와 연결되면서 권위를 상실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더불어 당시 신문기사에서 명칭은 접미어로 공원이 접목되어 사직공원과 사직단공원이 병용되었다.

### 3. 공원 이용과 보호구역의 공존

신문과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직단공원의 이용 행태에 대한 첫 언급은 동아일보 1923년 5월 9일 기사에 등장한다. “전매국 경성지국(專賣局京城支局)과 출장소 직공 2,635인의 위안운동회가 사직단공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이다. 1937년 도면에서 보면 아동정원과 황학정 방향 산책로 중간 공터가 비교적 넓은 부지를 형성하며 이곳이 운동장처럼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이벤트적인 행사도 같이 진행했으며, 사진회(1927년)와 경성부 관앵음악회(1929년)가 해당된다.

매일신보 1930년 6월 12일 기사는 “‘노세, 젊어 노세’ 소리가 나오면 또 한편에서는 ‘아리랑, 아리랑 아리리요’ 소리가 흘러 나온다. 높은 창가 소리가 들리고,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고, 또 한편 모퉁이에서는 만군을 흠여버리는 장량의 옥통소 소리같은 처량한 단소곡조가 들린다. 으스스한 수목 사이에는 사람의 눈을 꺼리는 청춘 남녀가 조용히 앉아서 사랑을 속삭거리며... 중략...”이다. 1936년 『삼천리』의 제8권 제11호 기사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때에도 사직공원에는 사주쟁이, 아편쟁이, 걸인들이 사방에서 몰려 들어와서는 늘 쉬는 곳이었다.”이다. 이처럼 1930년의 사직단 공원은 흥겨운 소리가 흐르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와 다양한 계층이 이용했음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근로봉사회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관리하기도 하였다<sup>9)</sup>.

사직단 공원의 활발한 이용은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광장과 풍부한 녹음, 시원한 계곡이 있는 물리적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징의 중의 하나는 아동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아동유영장(兒童遊泳場)과 단영역의 동쪽에는 아동유원지가 공간에 표현되어 있다. 1943년 도면에서 아동유영장이 방공저수조 겸 아동풀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1941년에서 1943년 만들어진 방공호가 아동수영장과 방공저수조 기능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제례기능이 사라진 건물의 멸실은 가속화되었다. 1931년의 [조선고적명소천연물보존령(朝鮮古蹟名所天然物保存令)] 제정을 위해서 조사한 목록에 재실이 포함되는 정도였다. 1935년 8월에는 사직단이 고적(古蹟)으로 지정되고, 1938년 9월 사직

단문이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 조선의 고적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결국 면적인 개념으로 보호되던 사직단 영역이 점적인 건축물 위주로 인식되어 사직단의 영역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 IV. 혼재된 장소성 : 해방 이후 - 1984년

### 1. 경계부 건물 축조와 터널 개설에 의한 외형 변화

사직단 대문 우측의 인보관(隣保館)은 해방 이후 1958년까지 고아와 부랑아를 보호하기 위한 시립중앙보호소로 사용되었다(The City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 of Seoul, 1965: 437). 1956년에는 단 영역 북쪽에 시립아동보건병원 건립이 추진되었고(The Dong-A Ilbo, 11 February, 1956), ‘시립아동병원(1969년)’으로 개칭 후 1977년 강남구 내곡동으로 이전하자 남겨진 건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으로 개관했다(MK Business News, 4 May, 1979). 단군전<sup>10)</sup>은 1960년 최초로 축조된 후 1968년에는 건물과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단군전의 북쪽에는 1960년의 서울시 주요 사업으로 각 구에 조성된 노인정이 입지했다. 종로도서관은 파고다공원 후면에 위치하였는데, 1968년 공원 주변의 아케이드 조성으로 철거되어 사직단 북쪽에 신축되었다. 더불어 입구 근처 경계에는 파출소(1969년),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1975년) 등이 추가적으로 건립되어 경계부는 훼손되었다.

1960년에는 사단과 직단 영역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후 단 주변에 철책을 둘렀으나 관리 소홀로 어린이들의 놀이장소로 이용되기도 했다(Figure 6b 참조). 이에 1963년 9월에는 교육국에서 8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직단 주변으로 회양목(*Buxus koreana*)을 식재하고 철책으로 둘렀다(The Kyunghyang Shinmun, 12 September, 1963). 1967년의 사진(Figure 6c 참조)을 보면 울타리 주변에 옥향(*Juniperus chinensis*)을 식재했고, 호박돌로 화단 경계를 조성한 모습이다. 이때, 단 영역을 수리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원형회복을 위한 작업은 아니었다.

1966년 서울시장으로 부임한 김현옥은 도시개조를 목적으로 다양한 토목 사업을 진행했다. 1967년에는 경복궁에서 신춘에 이르는 사직터널공사를 시작했고 이와 연결된 도로가 개설되었다. 개설 도로 선형에 사직단 정문이 저축되자 이축계획을 세웠고, 문화재위원회의 반대가 있었지만 공사는 그대로 진행되었다(The Dong-A Ilbo, 24 January, 1967). 이후 이축된 사직단 정문 전면에 보행로 미확보가 문제로 제기되자 1973년 인도 조성을 위해서 정문을 10m 정도 뒤로 이축했다(The Kyunghyang Shinmun, 25 September, 1973).

이처럼 해방 이후의 변화는 경계부에 사직단의 공간 성격과 다른 향후 복원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되는 요소들이 도



입된 시기이다. 더불어 사직단 대문의 이축으로 담장이 없는 문의 동쪽이 출입 통로 역할을 하였고, 대문은 굳게 닫혀 진입에 의한 공간 위계가 변형되었다.

## 2. 어린이를 위한 수경시설

일제강점기 사직단에서 사직단공원으로 변모 시 어린이를 위한 아동유원지와 아동유영장이 도입된 것은 공간 구성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방공저수조 겸 아동수영장이었던 장소는 그대로 활용되어 1947년 어린이 풀장으로 개장했다(The Dong-A Ilbo, 25 July, 1947). 풀장의 수량 확보는 인왕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활용했으며, 주변의 숲과 어우러져 이용도가 높은 장소라는 신문기사를 볼 수 있다(The Kyunghyang Shinmun, 22 June, 1972). 일제강점기 사직단 영역의 서측에 있었던 물길이 지나는 자리에 1968년 450명을 수용 가능한 25m×50m 규격의 사직 파라다이스 수영장이 개장되었다. 1968년 사진을 보면 호안가에 2층 테라스가 조성된 식당이 갖추어졌으며, 전면에는 계단형으로 조성된 수영장이었다(Figure 6b 참조). 동절기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시기에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거나(The Kyunghyang Shinmun, 25 January, 1972), 투견장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The Kyunghyang Shinmun, 7 October, 1972).

도심지에 위치한 공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의 조성은 공원 기능에서는 바람직하나 과거 한 나라를 위한 제례공간으로의 가치는 존중되지 못한 공간 전용으로 볼 수 있다.

## 3. 상징적 기념물과 공원, 그리고 문화재 의미의 충돌

1966년 김종필을 중심으로 조직된 ‘애국선열조상위원회’는 서울시민이 쉽게 모일 수 장소를 선정하여 서울 곳곳에 15개의 동상을 세웠다. 1968년 4월 세종로의 이순신장군 동상, 덕수궁의 세종대왕 동상과 사직공원의 울곡 이이와 신사임당 동상이 이에 해당한다. 사직단에서는 과거 전사청 자리에 1969년 4.5m 크기의 울곡 이이 동상을 세웠고(The Kyunghyang Shinmun, 8 August, 1969), 1970년에는 울곡 동상 측면에 신사임당 동상을 세웠으며, 준공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할 정도로 큰 행사로 진행되었다(The Dong-A Ilbo, 14 October, 1970). 이외에 사직단의 공간 성격과 관련없는 각종 기념비들이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의 어머니헌장탑은 1966년 5월 8일 어머니의 날을 기념하여 덕수궁에 설치되었으나(The Dong-A Ilbo, 7 May, 1966), 1985년 고궁의 정화작업으로 사직공원으로 이설되었다. 1977년에는 한국소설가협회가 공원 서쪽에 김동인문학비를 건립했다(The Kyunghyang Shinmun, 21 April, 1977).

공원에 대한 명칭은 ‘사직공원’과 ‘사직단공원’으로 불렸다가 1977년 7월 9일 ‘건설부고시 제 138호’로 ‘사직근린공원’으로 변경이 결정되었다. 1979년에는 서울시 고시 제310호에 의해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공원과 근린공원으로의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와 함께 1963년에는 ‘서울 사직단’이 사적 제 121호로 지정되었고, 2011년 ‘사직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사직단 정문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 177호로 지정되었



Figure 6. Transformation and heterogeneous elements of Sajik Park  
 (a: 서울시 항공사진 서비스, b: 동아일보 1960년 8월 8일, c: 1967년 9월 16일 사진, d: 국가기록원 소장, e: 신문기사

고, 2013년 '사직단 대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사직공원은 도시근린공원으로 법적 지위 확보와 점적인 요소로 사직단 영역, 대문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이용과 보존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모되었다.

## V. 사직단의 공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 : 1985년 - 현재

### 1. 원형복원을 위한 계획과 오류

1985년에는 사직단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서울 사직단 고증 조사 및 복원기본계획]이 작성되었다. 1987년에는 1단계에서 국사단·국직단·담장·문의 복원, 2단계에서 사직서와 재실의 복원과 같이 2단계의 복원을 확정했다. 1988년에 사직단과 유원(塿垣),

유문(塿門) 및 주원(周垣)과 주문(周門), 신실(神室)의 복원과 관리사무소로 이용되던 안향청을 비우고 측면에 관리사무소를 신축이 실제로 행해졌다. 그러나 1985년에 작성된 보고서에는 오류가 내재되어 있다. 김정희의 [사직단도]를 참고하였다고 했지만, 실제 첨부된 도상은 근대 역사풍속화가인 김학수의 [사직단]이다. 『국조오례의』의 [사직단도(1474년)]과 비교 시 대문 위치와 환장 영역이 좁게 표현되었다. [사직서전도(1783년)]와 비교 시에는 환장과 정문, 전사청 영역, 안향청 영역의 유무가 차이를 보인다. 전사청은 1915년 지도와 비교할 경우 능선 방향과 일치하는 북동향이나, 복원계획도에서는 남서쪽으로 작도되었다. 이는 복원 시점에 대한 면밀한 조사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전사청 영역은 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처럼 사직단의 복원계획의 수립은 사직단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으나 잘못된 복원 계획은 오류의 재확산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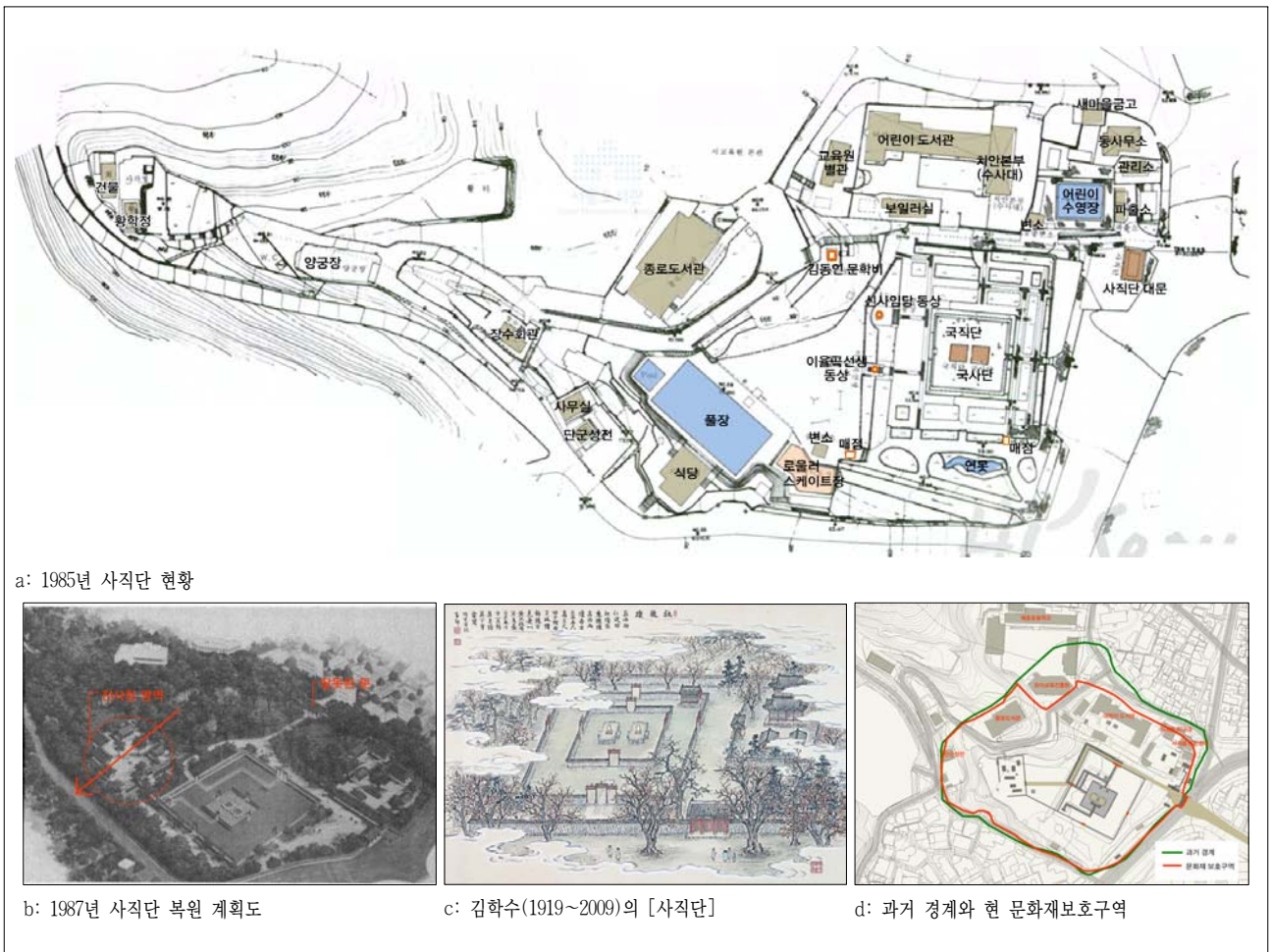


Figure 7. Comparison between Restoration Plan of Sajikdan in 1987 and current status ( a: 서울사직단 고증 조사 및 복원 기본계획 보고서, b: 경향신문 1987년 5월 2일, c: 성균관대박물관, d: 저자 작성)

## 2. 복원 과정에서의 이해 충돌

1985년의 복원계획 과정에서 사직단과 관련이 없는 울곡 이이 동상과 신사임당 동상은 서울대공원, 김동인 문학비와 대한민국의 어머니현장비는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설하고자 했다. 철거 대상에는 풀장 2곳, 어린이놀이터, 노인정이 포함되었으나 울곡 이이 동상과 신사임당 동상은 서쪽으로 이설되었고, 대한민국의 어머니현장비는 존치되었다. 어린이도서관은 철거 또는 이전하려 했으나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도서관이라는 상징성으로 유지되었고, 사직동 주민센터, 사직 경로당 또한 주민의 반대로 이전하지 못했다.

2014년 3월 '사직단 복원 정비 기본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에 등장하는 기사는 매동초등학교와 어린이도서관의 이전을 반대하는 '사직단 복원 반대'를 위한 주민 모임이 결성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직단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에 대한 편의성과 문화재 원형 복원 과정에서 겹쳐지는 공간이 갈등 유발 지역으로 변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최근 문화재공간의 원형 복원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이다.

## VI. 결론

조선 개국 시 영조된 사직단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사직공원으로 고착화되었고, 최근 복원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원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인근 주민과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직단의 조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통시적인 변천의 분석을 위해 고지도와 근대지도, 수치지도를 중첩시켜 각 공간요소와 사직단의 경계부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도출하였으며, 공간 인식에 대한 변천은 신문가 잡지 기사를 활용했다. 이에 시기별로 구분한 사직단의 과정적 변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직단이 한 나라의 중요 국가 제사를 지내던 장소로의 입지를 확보하고 강화했던 조선 태조에서 일제강점기 이전까지의 시기이다. 사직단은 태조 대 경복궁의 왼쪽인 인왕산 자락에 양단의 형태로 조성되었다. 성종 대까지 단 영역, 신주 영역이 조성되었고, 임진왜란 당시 양단을 제외한 다른 시설들이 모두 소실되었다. 영조 대에 이르러 단 영역, 안향청 영역, 전사청 영역과 이 밖의 부속 건물이 축조되어 제례를 위한 공간요소가 완비되었다. 대한제국의 개국으로 사직단 지위는 제국에 걸맞게 상승되었다가 1908년 일제의 간섭이 본격화되자 사직서의 멸실과 제사가 폐지되었다.

둘째, 사직단이 일제에 의해 공원화가 진행되어 고착화된 1910년부터 1944년까지이다. 1911년에는 사직단의 건물과 부지

가 총독부에 인계됨에 따라 국가적인 제례기능이 폐지되어 1920년까지는 잡풀이 우거진 유희지로 방치되었다. 1920년대 경성부의 공원화 사업으로 경성시민에게는 도시공원으로의 인식이 강화되었다. 매동보통학교(1931년)의 축조와 학교로의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로 사직공원 북쪽의 경계부에 변화가 생겼다. 공원 면적은 축조되었고, 내부에는 공원 관련 시설이 확충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단 영역, 재실, 사직단문이 고적과 보물로 지정되었다.

셋째, 사직공원으로 해방 이후 1984년까지 이질적 성격의 동상과 기념비, 건축물이 축조되어 혼재된 장소성을 갖게 되는 시기이다. 사직공원 경계부 북측과 우측에 시립중앙보호소·시립아동병원·어린이도서관·사직동사무소·종로도서관·단군전·사직기념관이 들어섰다. 더불어 사직단과 맥락이 다른 특정 위인의 동상과 기념비, 어린이를 위한 위락시설인 어린이풀장과 사직파라다이스 수영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한 사직터널 개설로 인하여 사직단 대문이 2번에 걸쳐서 이축되어 이로 인해 사직단의 진입에 의한 공간 위계가 변형된 시기이다.

넷째, 사직단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사직단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부각되면서 1985년 복원을 위한 고증과 복원 계획이 발표되었다. 1988년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상과 기념비, 건물의 이축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014년 현재 사직단 원형 복원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주민 편의시설의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 의견이 공존하여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직단의 원형복원과 복원 시점 설정을 위해서는 면밀한 고증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더불어 문화재 권역의 원형 복원을 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방적인 복원이 아닌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함께 진행됨을 바라는 바이다.

주 1) 유(壘)의 크기는 송(宋)의 제도를 따라 한 변이 25보(步), 즉 150척이 되게 하였다.

주 2) 문화재청(2005년)은 경계 정선의 [사직단도]에 정문의 위치가 북쪽으로 나타나 있어 대문은 본래 북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숙종실록』(숙종46년 1720년 March 1일, 1번째 기사)에서 사직단신문삼간(社稷壇神門三間)이 파쇄(破碎)되었다고 하였고, 그 이후로 계속 북신문·정문 수리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720년대에 정문이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축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승식 외(2012)는 경계 정선의 『사직단도』는 사실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Figure 이며, 고문헌·고지도에 정문 이축에 관한 기록이 없어 중건 당시부터 동쪽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다. 또한 영조대의 『사직서의궐』에서 사직단 북쪽에 있는 민가를 헐어내고 그곳에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사직단 대문은 중건 당시부터 동쪽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다.

주 3) 사직단 일대를 순찰하는 군사들의 대기처(待機處)로 영조대에 대문 옆으로 이축된 부장직소는 정조대의 도상자료에서 위치가 파악되지만, 숙종대 신설된 부장직소의 위치는 알 수 없다.



- 주 4) 『사직서의궤』 제 3권, 단유(壇壝)와 관사(館舍), “영조 18년 임술(1742) September, 본서(本署)가 아뢰기를, “본서의 부장청(部將廳)이 벽(壁) 뒤에 있는데 대문(大門)과 서로 등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을 살펴 조사할 수가 없으니, 해당 조(曹)로 하여금 대문 곁으로 옮겨 세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주 5) 『사직서의궤(社稷署儀軌)』 제 3권, 단유(壇壝)와 관사(館舍), “영조 25년 기사(1749) July, 예조가 아뢰기를, “사직의 제기장(祭器藏)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안향청(安香廳) 서쪽에 있는 제기고(祭器庫)는 퇴락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대가 낮고 습한 곳입니다. [오례의(五禮儀)]의 도식(圖式)을 상고해 보니, 단(壇)의 서쪽, 주방(廚房) 북쪽에 제기고가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지고 차장고(遮帳庫)가 되었는데, 지세가 정결하고 평탄하여 지금의 고사(庫舍)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례의] 도식에 의거하여 제기고를 이곳에 다시 지은 뒤에, 제기장을 만드는 것이 사리에 매우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주 6) 『영조실록』 권 90, 영조 33년(1757년) October 10일, 2번째 기사, “...제사가 끝난 뒤에 폐백은 불사르고 축문(祝文)은 내감(內坎)에 묻어 두었다가 세말(歲末)에 제조(提調)가 예조·당상·묘사(廟司)·단사(壇司)·전사(殿司)와 함께 외감(外坎)에 나아가 정결히 태우도록 하라...”
- 주 7) 『고종실록』 권 36, 고종 34년(1897년) October 13일, 2번째 기사
- 주 8) 사직단에서 이뤄진 기록상의 마지막 제사이다. 대한Maeilsinbo, 1909년 September 16일 기사, “음력 팔월 초에 사직단에 제사를 하였다.”
- 주 9) Maeilsinbo 1939년 July 20일 기사는 “자발적으로 사직단공원 근로봉사회를 만들어 ...중략... 회원이 원내의 소제(掃除)와 취제(取締)를 하야왔는 데 ...중략... 그리고 사직 안에서 쓰든 어정(御井)있던 곳을 十三年만인 근일에 이르러 발견한 고로 회원들이 봤다고 한다.” 이다.
- 주 10) 현재 단군전은 1990년 쌍룡그룹의 후원으로 확장된 형태이다.

-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9(4).
6. Kong, J. W.(2009). Five Palace and cpital city: Segye munye.
7. Lee, S. H.(2004), Rediscovery of Korean Beauty, Confucian Building in Palaces: Sol
8. Lee, J. H.(2013), For restoration of pine wood for Joseon shrine, Forests & Culture 22(1): 15-21
9. Byulgengun(1929). 23.
10. Hwangshungshinmun(1906). 14 May.
11. Hwangshungshinmun(1905). 7 August.
12. Jungyeailbo(1929). 21 April.
13. Maeilsinbo(1924). 8 May.
14. Maeilsinbo(1926). 9 May.
15. Maeilsinbo(1927). 21 July.
16. Maeilsinbo(1930). 12 June.
17. Maeilsinbo(1939). 21 July.
18. MK Business News(1968). 13 August.
19. MK Business News(1979). 4 May 4.
20. National Archives of Korea
21. Samchunli(1936). no 8(11).
22. Sinhanminbo(1925). 8 January.
23. The Dong-A Ilbo(1921). 4 November.
24. The Dong-A Ilbo(1922). 21 October.
25. The Dong-A Ilbo(1923). 29 January.
26. The Dong-A Ilbo(1923). 9 May.
27. The Dong-A Ilbo(1933). 22 July.
28. The Dong-A Ilbo(1947). 26 July.
29. The Dong-A Ilbo(1947). 11 February.
30. The Dong-A Ilbo(1963). 23 January.
31. The Dong-A Ilbo(1966). 7 May.
32. The Dong-A Ilbo(1967). 21 January.
33. The Dong-A Ilbo(1967). 24 January.
34. The Dong-A Ilbo(1967). 10 August.
35. The Dong-A Ilbo(1968). 1 February.
36. The Dong-A Ilbo(1968). 20 August.
37. The Dong-A Ilbo(1970). 14 October.
38. The Kyunghyang Shinmun(1963). 12 September.
39. The Kyunghyang Shinmun(1968). 12 August.
40. The Kyunghyang Shinmun(1969). 8 August.
41. The Kyunghyang Shinmun(1970). 30 July.
42. The Kyunghyang Shinmun(1972). 22 June.
43. The Kyunghyang Shinmun(1972). 7 October.
44. The Kyunghyang Shinmun(1972). 25 January.
45. The Kyunghyang Shinmun(1973). 25 September.
46. The Kyunghyang Shinmun(1977). 21 April.
47. The Kyunghyang Shinmun(1976). 23 March.
48. The Kyunghyang Shinmun(1985). 6 March.

REFERENCES

1. Choi, S. S., Sim, W. G., Yoo, J. H., Jeon, H. W. and Choi, J. H. (2012). Basic Studies on the Loca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eoul Sajikdanq: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0(1).

2. Jang, J. Y.(2011). Formation of the Institution of hanseoung Capital city's Sajik-dan Altar in the early days of Joseon, and its meaning.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43(-): 103-148.

3. Joo, N. C.(2006). A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Korea University Press.

4. Kang, S. H. et al.(2004). History of Korean Modern Urban Parks: Daewangsa.

5. Kim, Y.M. and Lim, Y.J.(2001). A study on the compositional concept of Chongnyo and Sajik in Choson Dynasty: Journal of

원 고 접 수 일: 2014년 11월 20일  
 심 사 일: 2014년 11월 26일(1차)  
 2014년 12월 08일(2차)  
 2014년 12월 18일(3차)  
 계 재 확 정 일: 2014년 12월 18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